

 <b>보건복지부</b>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
배 포 일	2020. 4. 3. / (총 7매)			
중양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	팀 장 담 당 자	이 선 영 조 영 대	전 화	044-202-3575 044-202-3805
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	과 장 담 당 자	노 혜 원 이 승 훈	전 화	044-200-2293 044-200-2295
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	과 장 담 당 자	박 상 욱 윤 철 민	전 화	02-2110-4090 02-2110-4091
중양사고수습본부 교민지원팀	팀 장 담 당 자	유 보 영 박 지 혜	전 화	044-202-3713 044-202-3714

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

- ▲해외입국자 현황, ▲온라인 개학 준비사항,  
▲유학생 입국 상황 및 관리방안 등 -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(국무총리)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·도와 함께 ▲해외입국자 현황, ▲온라인 개학 준비 사항, ▲유학생 입국 상황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기부금품이 2,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, 추후 이의 활용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미리 대처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.
- 또한,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외국인 입국은 최소화하고, 이를 위해 전세기나 특별기 운항 허가에 신중할 것과, 특정 날짜나 시간에 입국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비행 일정을 조정하는 등 관계기관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.

- 아울러 15일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끝나가는 시점에서, 이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.

## 1 해외 입국자 현황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국적, 출발지 구분에 따른 해외 입국자 3월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.

- 2020년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전체 입국자는 총 344,390명으로 지난해(19년) 대비 92% 감소하였으며, 입국자 중 우리 국민이 75%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.

\* '19.3.1.~'19.4.1. 국적별 입국자 중 62%가 우리 국민

- 출발지별로 확인한 결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7% 감소(875,034명→24,912명)하였으며, 미국과 유럽에서 온 입국자도 각각 전년 대비 58%, 71% 감소하였다.

## 2 온라인 개학 준비사항 및 유학생 관리

※ 해당 내용은 교육부에서 추후 별도 설명 예정입니다.

소속	부서
교육부	평생미래교육국 이러닝과 국제협력관 교육국제화담당관

### 3 이탈리아 교민 귀국 검역 및 의료지원 상황

□ 이탈리아 2차 임시항공편은 로마에서 113명, 로마에서 밀라노로 이동하여 밀라노에서 92명의 우리 국민과 그 직계가족 총 205명을 태우고 어제(4월 2일) 16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.

○ 탑승 전 발열 체크 및 우리 검역관의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으로 유증상자를 분류하고 기내 좌석을 분리하였으며,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실시하였다.

\* 37.5도 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 탑승 불가 조치

○ 두 차례에 걸친 검역을 통해 총 20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인천공항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한 결과, 1명이 확진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, 음성으로 확인된 19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한다.

○ 그 외 185명은 재외국민 임시생활시설(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)로 이동하였으며 오늘 오전부터 전수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.

□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인 확인된 사람은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며, 그 외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.

○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 기간 중 정부합동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.

\* 의사,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진들이 상주하면서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 및 퇴소 전 진단검사 실시

□ 한편, 이란에서 3월 19일 귀국한 재외국민 79명은 오늘 오전 임시 생활시설에서 퇴소하였으며 거점 지역까지의 이송을 지원하였다.

- < 붙임 > 1.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
2. 코로나19 보도 준칙 (한국기자협회)  
3.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- < 홍보자료 별첨 > 1. 코로나19 예방수칙  
2.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 
3. <입국자>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 
4.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  
5.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 
6. <일반 국민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
7. <확진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
8. <격리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
9. 마스크 착용법  
10.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
11.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



## 붙임2

## 코로나19 보도 준칙 (한국기자협회)

### □ 한국기자협회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 (2020.2.21.)

- 다음은 2020년 2월 21일,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의 주요 내용으로,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1.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.

2. 세계보건기구(WHO)의 공식 병명은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'입니다.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.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, 사람 이름, 동물·식품 종류, 문화, 주민·국민, 산업,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 지역명을 넣은 '○○페렴' 등의 사용은 국가·종교·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,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,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

3.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·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,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.

※ 참조 :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,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

2020년 2월 21일

한 국 기 자 협 회



## 붙임3

##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### [일반국민]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.
2.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
3.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
4.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5.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.
6.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.

### [고위험군] : 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\*

\* 당뇨병, 심부전, 만성호흡기 질환(천식, 만성폐쇄성질환), 신부전, 암환자 등

1.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.
2.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
### [유증상자] : 발열이나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사람

1.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.
2.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-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.
3.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,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.

### [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]

1.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.
2. 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.